

말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평화를

한국불교학회 만해축전 불교학술심포지엄서 불교의 평화사상 학문적 조명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6월 24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만해축전 불교학술심포지엄을 겸해 '불교의 평화사상과 소통-원리와 방법'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선근 동국대 교수, 최유진 경남대 교수, 이거룡 선문대 교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최종석 금강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노덕현 기자



김선근 교수

“석가모니는 중도로 사회를 회통했다.”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이날 '고대중국의 회통으로서의 석가모니 인식과 실천' 발표에서 석가모니의 실천은 팔정도이며 이는 육망과 고행의 중도라고 강조했다.

김선근 교수는 “석가모니는 당시 시대 사조의 두 주류인 짜르와가의 쾌락설과 자이나교의 고행설 이 두 극단을 회통하고 중도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다”며 “팔정도에 의한 중도의 실천은 고정적인 입장에서 의거 하지 않음”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인식은 연기설에 근거해 있다. 연기의 인식으로 중도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담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실천방향을 계정해 삼학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석가모니는 출신을 묻지 말고 행위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결정됨을 주장했고, 그래서 계·정·혜 삼학의 실천을 강조했다”며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선 계학에 의해 생활을 가지런히 함이 중요하다. 계학이 기초되 선정을 실천하면 그것이 정학이고 이로써 해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유진 교수

“원효의 평화사상은 화쟁”

최유진 경남대 철학과 교수는 ‘원효의 평화사상’ 주제발표에서 원효의 평화사상을 내면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로 나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원효의 평화사상 중 내면적 평화의 이상적 경지는 일심”이라며 “일심은 탐욕과 어리석음이 없는 단계로 그 근원은 상대적이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원효는 사회적 차원의 평화를 화쟁사상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원효의 화쟁사상이 다종교 사회인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인 화쟁의 방법으로 스부정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공정하고 부정을 자유자재로 할 것 △동등과 동의하지 않음을 자유자재로 할 것을 들었다.

최 교수는 끝으로 “그 무엇보다 원효는 민중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실천했다”며 “직접적인 실천이 없다면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거룡 교수

“정교분리로 평화 이끈 뒷날한”

이거룡 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 교수도 ‘뒷날한의 평화사상’ 주제발표에서 뒷날한의 평화사상이 오늘날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은 스님이 보여준 실천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룡 교수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공정하고 부정을 자유자재로 할 것 △동등과 동의하지 않음을 자유자재로 할 것을 들었다.

이거룡 교수는 “뒷날한의 가장 특이한 점은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엄격히 구분한 점”이라며 “뒷날한은 베트남의 모든 운동 중에 가장 정치적이지만 사회운동들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뒷날한은 1963년 베트남 전쟁 이후 불교정당 창립의 목소리에도 불교정치인을 비롯한 어떤 정치세력과도 결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정교분리의 원칙이 결국 베트남 다영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원동력이 됐으며 그 이후 불교인들은 베트남 사회에서 원치 않았어도 정치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진관 스님

“호국불교사상에서 평화 나온다”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한국의 분단현실에서 불교의 평화사상이 통일근본이 된다고 말했다.

진관 스님은 불교 평화사상의 시발점을 호국불교사상에서 찾았다.

진관 스님은 “신라·고려시대 등에 있어 호국불교사상은 한반도 평화를 이끈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2000년에 진행된 6·15 남북공동선언이 호국불교사상을 이은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자주화·민주화·평화통일의 3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즉,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념차이를 극복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이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불교평화운동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자들은 이런 평화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석 교수

“자기비움에서 모든 종교의 평화시작”

최종석 금강대 불교복지학부 교수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평화실천’ 발표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평화사상이 자기비움에 기반하고 있음을 들었다.

최 교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은 바로 ‘자기비움의 완성’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또한 중도의 공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중도의 공덕 기회를 뺏지 않기 위한 그런 행위 자체가 철저한 자기비움, 즉 무아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불교에 있어서의 평화는 이런 무아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지혜의 사랑에서 이뤄지는 점을 들고 그 실천행은 자비로 대변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 실천행으로 팔정도의 실천을 들었다.

최 교수는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우리는 팔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팔정도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이 걸어온 무아적 삶과 무아적 평화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비움을 통한 인격완성은 모든 종교인의 지향점으로 사회통합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덕사 만공탑 문화재 된다

“만공 스님의 사상 상징적 구현한 걸작”

근대에 세워진 만공 스님의 부도탑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6월 29일 만공(1871~1946)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 1947년에 세운 ‘예산 수덕사 만공탑’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다.

만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애석불교를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스님으로 만공탑은 전통적 승탑 형식을 탈피한 현대적인 기념탑이다.

만공탑은 육각의 지대석 위에 원형의 괴임돌을 놓고 그 위에 세 개의 기둥을 평면 Y자 형태로 세운 후, 그 위에 구체(球體)를 올려놓았다. 기둥 세면의 빈 공간에는 오석(烏石)으로 면석을 조성했다. 면석의 정면에는 한글로 ‘만공탑’이라 음각했고, 좌우측 면석에는 ‘세계일화’, ‘百神是佛母’(백초시보모)를 비롯한 만공 스님의 친필과 행장(行狀), 법훈(法訓) 등이 새겨져 있다. 탑 주위에 두른 육각의 돌난간은 후대에 만공탑을 보호하



만공탑

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만공 스님이 추구한 사상을 상징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함으로 문화재청은 근현대 시기 사찰 조형물로서 가치가 있는 점과 각 부재의 구성 요소들이 안정감 있는 비례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문화재 등록은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노덕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회 금관상 수상

진정한 학예사, ‘후백제 불교미술 특징과 성격’

불교미술을 주제로 쓴 논문이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실시한 학술상 공모에서 금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유창종)가 6월 28일 실시한 제5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모에서 불진정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이 금관상을 수상했다.

진정한 학예연구사의 논문은 ‘동학미술사학’ 제11회에 실린 것으로 후백제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왕실 발원 불사를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통해 후백제 불교미술의 성격 및 형성배경을 고찰했다. 특히 진정한 학예연구사는 후백제 불교미술의 백제적 요소가 일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점을 들고, 이러한 점은 통일신라시대 백제 불교미술 양식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후백제 건국에 의해 촉발된 백제 계승의지를 표출로 특정형식만 차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국립중앙박물관회 학



술상 수상논문에는 대상 ‘천마상’(상금 1000만원)의 장용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서일본지역에 있어서 용별(湧別)기법 계통’을 비롯해 ‘금관상’(상금 500만원)에 진정한 학예연구사의 ‘후백제 불교미술의 특징과 성격’, 윤태영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관의 ‘부여 구봉리 유적 출토 사에 대한 고찰’ 등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동산불교대학 39기 신입생 모집

“끝없는 열정” 동산

신행 교육 포교 전문도량 동산

동산불교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종 수행을 통하여 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성인들의 배움의 공간입니다.

▶ 교과목 및 교수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빈이사상, 유식사상, 불교성인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18과목
▶ 교수진	무진장 대종사 학정스님, 주명철 교수, 정영스님, 김형준 교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최종석 교수, 윤영수 교수, 김호기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김성현 교수, 모주스님, 정성준 교수, 권경희 교수, 박종 교수, 정병호 교수, 차차서 교수 외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학과 (180명) (토요일·목요일·토요일 각 60명) · 불교다도학과 (3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 (30명)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9월 개강학과] 2011년 6월 27일~8월 6일 2011년 7월 1일~9월 8일 입학금 250,000원	[불교학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일) (토산반은 교재와 테이프 제공.)

▶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11년 8월 6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6일(화),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7일(수), 불교한문학과 9월8일(목)
불교미술학과 9월8일(목) 개강

▶ 원서문의·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gital Echo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

·법당 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06LC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편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상차비 포함)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일반형) 175,000원 (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